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6일 화요일 음 6월 14일 (6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고 오후부터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21~22°C로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26~27°C가 되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rain and temperature ranges.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해질.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and moonrise.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전 기상정보, 주의. Rows show UV index, visibility, and other safety-related weather info.

월드뉴스

'아침형' 여성, 유방암 위험 낮다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련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여성이 늦게 일어나는 '저녁형'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낮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방암 검사 장면.

영국 브리스톨대학의 레베카 리치먼드 공중보건학 교수 연구팀이 여성 18만2216명에 관한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자료와 여성 22만8951명이 대상이 된 영국 유방암학회 컨소시엄 연구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인 여성은 1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유방암 위험이 1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유방암 유병률은 '아침형' 여성이 '저녁형' 여성보다 100명당 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유방암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야간 조명이 노출되면 24시간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이것이 유방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여러 호르몬 경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연구팀은 추측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 의학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호에 실렸다.

한라일보 advertisement box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한라칼럼



김윤우 무릉외갓집

제주 월동채소류의 '균형추' 마늘이 무너지고 있다. 갑골과 월동 무에 이어 제주 농업 조수익의 일정부문을 지탱하고 있는 마늘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3월 하순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포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나름 괜찮은 분위기였던 마늘에 왜 빨간불이 켜졌을까?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그 중 첫 번째가 날씨 등 생육 조건이 양호하여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당초 생산 예상량의 20%를 웃도는 생산량은 전국적으로 마늘 파이를 불러왔고, 결국 마늘시장에

월동채소류의 '균형추' 마늘을 살려야 한다

'불안'을 주며 거래를 약속했던 상인들이 마늘수매를 외면하거나 철수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언급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농협 마늘계약 단가가 시장 희망가격과의 간극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농협 계약재배 신청이 한창이던 작년 9월에 전국 마늘농장협회 관계자와 마늘유통인 몇몇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관계자는 "2018년산 재고량도 따라 마늘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걱정과 "내년(2019년)산 마늘 산지가격은 kg당 2800원선이면 시장이 큰 저항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선일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거나 남도마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대서마늘(스페인산)을 즐겨 쓰고 있다"며 작곡의 마늘시장 진단까지 덧붙였다. 하나 표발인 마늘 생산농가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산지조합장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3000원대에서 계약단가를 결정해야만 했던 고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계약 단가가 마늘시장이 희망하는 가격(kg당 2800원)에 어느정도 근접했다면 비계약량 5000t까지도 계약단가에 준하는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표명해본다.

이제는 마늘이 월동채소류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나 농협 그리고 생산자인 농가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다. 아시는 것처럼 마늘은 대정, 안덕, 한경 등 비교적 필지당 경제면적이 넓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여기에 서 나오는 조수익이 980억원으로 감

풀. 월동 무 다음으로 크다. 또한 마늘 특성상 기계수확이 불가능하여 파종에서부터 비닐타공과 굴취 그리고 절단과 포장 등 전 공정이 사람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월동채소류의 '균형추' 마늘을 살려야 한다. 우선 마늘조급제도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고 싶다. 생산자인 농가와 농협이 기계기기를 조성하고 여기에 정부(중앙+지방)가 출연하는 자조급은 마늘 수급조절은 물론 시장희망가격과 산지계약 단가와와의 간극을 좁혀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마늘농사가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작목과의 생산도 가능하리라 본다.

아울러 마늘농가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채소수급제도도 이 기회에 손질을 해서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마늘시장과의 교섭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열린마당

여행, 제대로 준비해 피해를 예방하자



신금옥 제주시 관광진흥과

여행을 통해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편취한 보도를 접할 때면 여행업 등록 및 지도감독을 하는 행정청 입장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여행사와 예약할 때 관광객 입장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인지를, 그리고 여행업증이 적합한 사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시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등록현황 및 보증보험 가입현황까지 게시되어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보증보험은 여행업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가입되고 있으나 재가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도 있다.

둘째 여행 계약서에는 계약서, 여

행일정표, 입금증 등 서류를 잘 챙겨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계약금도 포함된 경비를 입금할 때는 반드시 여행사 대표자나 법인의 경우를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발생시 배상신청을 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이다.

셋째 여행일정을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수수료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환불수수료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체마다 다르며, 인터넷상에 깨알처럼 적혀 있는 규정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넷째 카드 결제를 피하고 일정계약금이 아닌 경비 전액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더 신중히 살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지불하고 기간을 두고 완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또한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 납부 방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여행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여 부푼 기대를 안고 어렵게 계획한 일정이 여행업체의 불건전한 운영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손실까지 보는 이중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해 본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우니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어느새 장맛비가 내리며 여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7월이 됐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가장 많이 들어드는 문의는 "이미 팔았는데 세금이 왜 부과되느냐"이다. 이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달라 혼동하기 때문인 듯하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일할계산 되지만 재산세는 아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가지고 부과한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인 그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점을 기억해두고 매도할 때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매수할 때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

후에 한다면 재산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2019년이 되며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재산세는 1년에 두번 7월에 주택분(1/2), 건축물분 등이 9월에 주택분(1/2), 토지분이 부과된다. 그 중 주택분은 반으로 나뉘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데 작년까지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로 부과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괄 부과된다.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의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기 바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하니 7월이 지나기 전에 재산세를 잊지 말고 납부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Advertisement for Hanra Transcom (주) featuring a satellite image and listing variou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ervices like fiber optic, CCTV, and network setup.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주) highlighting their 'One-Stop System' for various IT services including voice, network, and security solutions.

Advertisement for Jeju City Government listing various cultural and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Jeju Cultural Heritage' and 'Jeju City Children's Library'.

Advertisement for Jeju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formation Center providing information on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prices, and government support programs.